

재활용 플라스틱 장신구

플라스틱 플라스틱 플라스틱

플라스틱^{plastic}은 성형하기 알맞다는 뜻의 그리스어인 플라스티코스^{plastikos}에서 유래하였습니다. 19세기 중반 상아로 된 당구공의 대용품으로 발명된 것이 최초의 플라스틱으로 알려져 있으며, 인공적으로 만들어지는 합성수지류를 총칭하는 말입니다.

자연물을 대신해서 발명된 플라스틱은 급속도로 발전하여 현재에는 우리 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그 사용 범위 또한 거의 무한한 듯합니다. 가공의 용이성, 사용의 편의성, 반영구적 견고함 등의 장점으로 인하여 최첨단 우주항공산업뿐만 아니라 식기, 포장 용기 등에 이르기까지 생활 곳곳에서 응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플라스틱이 마치 사물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 플라스틱은 물성을 갖지 않는다.’^{플라스틱사회/수전 프라인켈/김승진 옮김/울유문화사} 이는 플라스틱의 무한한 활용 가능성을 단적으로 정의하는 말로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플라스틱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 플라스틱 꽃까지도.

플라스틱의 발명은 장신구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19세기 중반 이미 유색 보석이나 상아, 거북이 등껍질 등을 대신하는 플라스틱들이 장신구에 사용됐으며, 7-80년대 유럽의 현대장신구작가들에게는 단지 보석이나 자연물 대용으로서의 의미를 벗어나 재료로써 실험되고 응용되었으며, 현재에도 공예가들에게 그 활용도는 유효합니다. 가공이 용이하고, 강도가 뛰어나며, 다양한 색과 물성을 가진 플라스틱은 공예가들에게 충분히



매력적인 재료입니다.

이렇듯 플라스틱은 우리에게 매우 편리하고 유용한 물질이지만, 한 번 버려지면, 경제적인 낭비와 무엇보다도 인간과 공존해야 할 자연과 환경에 큰 피해를 가져오게 됩니다. 인간 위주의 산업 발달은 우리들의 생활을 여유롭고 풍요롭게 만들었으며 인간들의 물질적 욕망을 충족시켜 주었으나, 환경에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제 환경은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된지 오래고, 친환경이란 용어는 새로운 미덕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과거 경제적 빈곤의 이유에서 절약하고 재활용하던 시기와는 전혀 다른 의미에서 재활용이란 단어가 이해되고 있습니다.

작가 개인이 선택한 친환경 메시지로서 재활용 플라스틱들은 공예가들의 재료에 대한 미적 호기심을 일깨우고 공예가 특유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현대장신구의 재료에 대한 유연성과 다양성 그리고 새로운 조형적 가능성을 보여주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장신구는 몸과 함께 자신과 자신의 의지를 표현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플라스틱 플라스틱 플라스틱 전시는 환경과 인간의 관계를 장신구라는 형식을 통해 재조명하고, 그 속에서 공예가들의 역할을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인간과 우리가 생산해 내는 물건들 그리고 환경과의 공존에 대한 의미와 중요성을 공예적 상상력과 함께 새롭게 고민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동춘 국민대학교수

Recycled Plastic Jewel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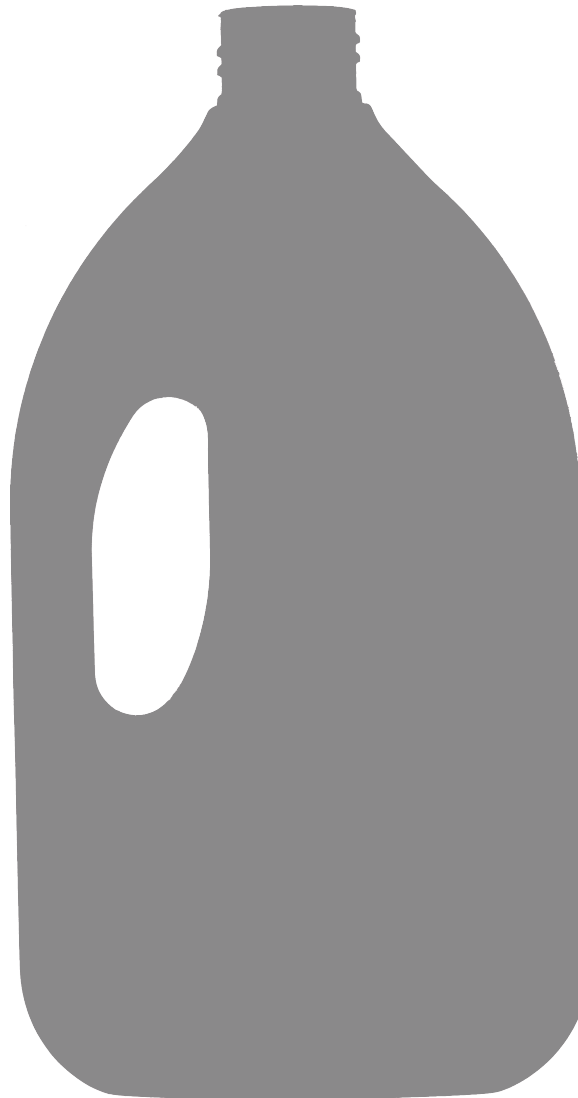
PLASTIC PLASIC PLASTIC

The term **plastic** derives from the Greek word **plastikos**, meaning ‘fit for molding.’ The first **plastic** product was invented in the mid-19th century, to replace the ivory billiard ball. The term **plastic** now includes every form of synthetic resin manufactured artificially.

Invented to replace natural materials, **plastic** has rapidly developed and became an integral part of daily life. There is almost no limit for its application. Being easy to process, convenient to use, and semi-permanently durable, it has been used in every part of human activity from plastic tableware and packaging to the astronautics industry.

In her book ‘Plastic: A Toxic Love Story,’ Susan Freinkel pointed out that “although we talk about plastic as a thing, it doesn’t have a thingness.” Ironically, this provides a pointed definition of its limitless application. We can make anything imaginable with plastic, even a fake flower, which looks more real than a real flower.

Jewelry is no exception. In the mid-19th century, conventional natural materials, including precious stones, ivory, and tortoiseshell, began to be replaced by **plastic**. Later, in the 1970s and 80s, **plastic**, beyond being a substitute of precious stones or other natural materials, began to be experimented with and applied to the works of contemporary jewelry artists in Europe. This is still the case today. The charm of **plastic**, with its easy fabrication, strength, and various colors and properties, appeals to craft artists of all kinds.



There is no denying that **plastic** is a convenient and useful material. However, once thrown away, it has immense environmental consequences on nature, not to mention economic losses. Such anthropocentric industrial development indeed made human life comfortable and rich. It fulfilled the desire for material. But it came with a fatal influence on the environment. To humanity in the modern era, environment has been an important issue, and being **environment-friendly** a new virtue. Thus, we do not **recycle** out of austerity, but for different reasons.

Now, **recycled plastic** has become a message for many artists. This environment-friendly material has aroused aesthetic curiosity toward the use of materials, and motivated the imaginative power unique to craft artists. It provides an opportunity to experience the flexibility and diversity of material and to envision the possibility of new formative arts. Jewelry is a tool to express oneself regarding one’s own body. This exhibition, **Plastic Plastic Plastic**, is an opportunity to shed new ligh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nvironment and humans in the form of jewelry, and to consider the role of artists within this framework. This exhibition will provoke viewers to reconsider their awareness of, and the importance of, plastic products of human manufacture and their coexistence with the environment through the imaginative perspective of craftwork.

Dongchun Lee, Professor, Kookmin University

Translation by Dr. Jaeyoon Yi